

지역 소식 통

고창군, 전북자치도민

양대체전 D-15 '최종 점검'

고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체육대회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며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군은 몇 달간 경기장 정비와 환경 개선, 안전시설 보완, 선수단 맞이 준비, 교통·주차 대책 마련 등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양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특히 공설운동장을 비롯한 노후된 경기장 시설을 정비하는 등 최적의 경기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경기장 주변 환경정화 활동 등을 통해 손님 맞이 준비에도 만전을 기했다.

이번 최종 점검에서는 그동안의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경기장별로 안전시설 보완 상태, 편의시설 정비, 비상 상황 대응체계 등을 살펴보고 남은 기간 내 보완해야 할 부분을 최종적으로 정리했다.

군은 미비점을 즉시 보완하고, 경기운영 요원과 자원봉사자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보건소, 말라리아

경보 속 방역 총력

질병관리청이 8월 19일 전국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한 가운데, 정읍시보건소가 상시 방역 체계를 가동하며 시민 건강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보는 말라리아 위험지역의 31주차(7월 27일~8월 2일) 채집 개체에서 삼일열원충 감염이 확인된 조치로, 지역 간 이동이나 해외 유입으로 감염 위험이 확산될 수 있음을 알린다.

시는 여름철 모기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맞춰 하수구 방역과 녹지대 분무소독, 유충구제, 포충기 가동을 지속 확대 중이다. 보건소는 특히 산란처가 되는 고인 물 제거와 배수 관리에 방점을 찍고, 야간 취약 시간대 순환 소독으로 생활권 모기 밀도를 낮추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정읍시는 현재까지 큰 이상은 없지만, 말라리아는 모기에 한 번 물려도 감염될 수 있는 만큼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RE100 국가산단 유치 총력 행보

권익현 부안군수, 중앙부처·정치권 찾아 국가계획 반영 전방위적 노력

권익현 부안군수는 새만금 RE100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연일 중앙부처와 정치권을 직접 찾아 설득에 나서며, 정책 공감대 형성과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권익현 군수는 지난 28일 세종에서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양홍서 부단장과 기획재정부 유수영 미래전략국장을 차례로 만나고 2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을 찾아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의 산업용지 전환과 RE100 기반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건의했다.

권익현 군수는 이 자리에서 부안에 RE100 국가산단이 유치되면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연계하여 '지산지소(地産地消)형 RE100 산업벨트'를



구축할 수 있고, 나아가 지역발전형 RE100 전략의 핵심 거점지로 거듭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는 △해상풍력 연계성, △전력 공급 인프라, △교통 접근성 등에서

탁월한 입지적 강점을 갖춘 최적지"라며 "이곳에 RE100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국가균형성장과 탄소중립 실현을 동시에 이끌어낼 전진 기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상반기 성과 바탕으로 하반기 맞춤형 지원 본격화

고창학교업무지원센터, 상반기 41교 지원... 하반기 행정업무 경감·안전환경 조성 강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경) 학교업무지원센터는 2025년 상반기 동안 관내 41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상반기에 교원 호봉 업무·기간제 교원 채용 등 인력 지원과 교과용 도서 관리·의무연수·에듀케어 관리 등 교육활동 지원을 추진했으며, 불법촬영 카메라·방송장비 점검, 수질검사·놀이시설 검사·불용물품 처리, 각종 컨설팅 등 교육환경과 안전 분야에서도 폭넓은 지원을 실시했다.

특히 신학기 일반교실 재배치 지원

과, 인력 부족으로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도서관 장서·폐기도서 정리 사업은 6개 학교를 대상으로 전문성을 강화한 결과, 학교 현장의 만족도가 높았던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또한 신규·저경력 교사를 대상, K-에듀파인 연수를 운영하고, 학교 현장 방문 설명회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는 등 맞춤형 행정지원 체계도 강화했다.

센터는 상반기 성과와 보완점을 반영해 하반기에는 지원을 한층 확대할 계획이다. 학교행정업무경감 협의체 논의에 따라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시범 전환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

함으로써 학교의 자체 점검·보고 업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기간제 교원 채용 지원 범위를 기존 서류전형에서 서류전형과 면접 지원까지 확대하여 채용 과정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지원, 법정 의무연수 미이수자 집합교육, 맞춤형 행정 컨설팅을 확대해 교직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한숙경 교육장은 "하반기에는 학교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한평생 부안갯벌 프로젝트 솔선수범 참여

부안군은 권익현 부안군수가 27일 군에서 추진 중인 전 국민 갯벌 보전 캠페인 '한평생(생) 부안갯벌 프로젝트-갯투게더'에 참여하며 정책 실천의 모범을 보였다고 밝혔다.

군과 월드비전, GS칼텍스, NH농협은행 전북본부, KB증권, 현대백화점, 글로벌 ESG협회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해 추진하는 한평생 부안갯벌 프로젝트는 국민 한 사람이 1평의 갯벌을 소유함으로써 사유지 난개발 방지와 갯벌 탄소 저장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전국



적 참여형 캠페인이다.

군은 이번 프로젝트의 대중 홍보를 위해 온라인 참여 도메인 플랫폼 '갯투게더(wvgatgether.kr)'를 오픈했으

며 권익현 군수도 플랫폼을 통해 갯벌 구매에 동참했다.

권익현 군수는 직접 참여함으로써 갯투게더 홈페이지 전반을 점검하고 편의 향상을 위한 보완점 등을 담당 부서에 피드백하며 군 추진 정책에 직접 선제적인 참여로 민관협력 및 상생하는 정책들에 대해 열정을 드러냈다.

권익현 군수는 "갯벌 보전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ESG 정책을 민관협력 모델로 승화해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골목상권, 전통시장 수준 지원

정읍시, 9월 30일까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접수

정읍시가 9월 30일까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받아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환경개선, 공동마케팅 등 전통시장 수준의 지원을 골목상권으로 확대한다.

시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체감 지원을 강화해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고,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인회가 구성된 곳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신청은 상인회 대표가 맡는다. 접수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정읍시청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지참해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상점가 환경개선, 공동마케팅 등 각종 지원사업에 응모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해진다.

주민은 골목형상점가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소비가 골목으로 몰고, 상인은 결제 채널 확대와 마케팅 지원을 통해 매출 회복에 실질적 도움을 받을 전망이다.

이학수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돼 침체된 지역 상권이 다시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상인과 시민 모두가 참여해 골목을 '다시 찾고 싶은 거리'로 만들자"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지난 25일부터 5일간 신규공무원 44명을 대상으로 '2025년 신규공무원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며 첫걸음부터 정읍형 실무역량을 다지고 있다.

정읍형 실무역량 첫걸음부터

2025 신규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시작

정읍시가 지난 25일부터 5일간 신규공무원 44명을 대상으로 '2025년 신규공무원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며 첫걸음부터 정읍형 실무역량을 다지고 있다.

부서 배치 전에 시청 전반을 이해하고 공문서 작성 등 필수 직무를 익히도록 설계된 기초 과정이다.

교육은 시청과 정읍시 일대에서 펼쳐진다. 공문서·보고서 작성법, 친절마인드 함양, 계약·감사 실무, 시장 홍보 등 현장에서 바로 쓰이는 콘텐츠로 채웠다.

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무성서원, 천사하이로즈, 목재문화체험장, 내장산 문화관광 열차 등 정읍의 역사·문화 현장을 찾아가 도시의 정체성과 정책 현안을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 포함됐다.

신입 공직자의 조직 적응을 돕는 장치도 촘촘하다. 민방위복·담뱃터·도장 등을 담은 웰컴 키트를 제공해 소속감과 자부심을 북돋고, 선배 공무원과의 멘토·멘티 결연식을 통해 실무팁과 커리어 조언을 나누는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교육 기간에는 보고 체계와 협업 방식, 공직 윤리와 책임 등 공직 문화의 핵심 가치도 강조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교육이 신규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한 행정의 기준을 몸에 익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현장과 데이터, 소통을 겸비한 공직자로 성장해 정읍의 변화를 이끄는 동력이 돼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